

“영상번역 속의 한국어: 구어와 문어 사이”에 대한 토론문

이 미 경¹
경희대학교^{1*}

migyonglee@khu.ac.kr^{1*}

이 연구는 영상번역이라는 특수한 매체에서 사용하는 구어에 나타난 특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더빙이라는 전달방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번역사의 표현 전략을 정리하여 구어 사용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연구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동영상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독자층에서 동영상은 선호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물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번역 분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번역연구 측면에서 영상번역 과정에 나타난 의미 전환 및 전달을 위한 표현방식과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며, 둘째는 언어 특히 구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로서입니다. 특히,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는 시점에 영상이라는 선호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해외의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 이 발표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래에서 발표 자료를 탐독하며 이해가 모자란 부분 그리고 연구 방법과 관련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시간적인 제약 하에서의 발화라는 측면에서 더빙을 위한 영상번역은 통역사의 발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통역사의 경우에는 가능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화를 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도 의미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도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어서 항상 둘 사이의 최선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빙 영상번역의 사례를 보면 더빙에서도 시간의 단축을 위해 축약적인 발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구어의 사용 습관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더빙이라는 전달 방식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화의 축약형을 선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에서 사례로 보여주신 예를 보면 발화의 전략이 시간의 단축이 목적인 경우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에게”를 “-한테”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시간 단축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구어에서 축약형을 사용한 발화는 아무래도 대화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그리고 격식이 없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축약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없는지요?

4) 구어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음성을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고, 문어는 문자를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낭독된 것은 음성 기호이지만 낭독 자료의 원본은 문어입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구어와 문어의 혼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구어이지만 미리 작성된 원고를 읽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어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뉴스 역시 문자로 작성된 기사를 아나운서가 읽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는 영상물 중 영화 대사인 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 결과로 나타난 구어의 특징이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번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영상번역에서의 구어의 특징도 장르 별로 구분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5) 국어교육은 매체에 의해 변화되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은희(2011)는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향후 국어교육은 그렇다면 이러한 구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례를 교육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